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정 숙 문 보 경*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이 연구는 유아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에 대한 유아 기질의 설명력을 알아보고,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관계를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260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질문지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의 매개 효과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완전 매개되며, 위험회피 기질은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여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며, 인내력 기질은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유아기는 매우 광범위한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하며 이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Breger, 1974). 유아는 신체적인 성장과 향상된 생리적 조절 능력을 발판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내용을 언어, 인지, 운동, 놀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게 된다. 또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제자매 관계, 또래 관계 등 사회적인 능력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상당수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

* 교신저자: 문보경, E-mail : mitdemwind@naver.com

하지만 유아기의 어려움이 이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Mathiesen & Sanson, 2000; Shaw, Winslow, & Flanagan, 1999).

유아기의 심각한 정서 행동 문제는 아동기 이후의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Mesman & Koot, 2001),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심리적 문제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sh & Wolfe, 2002). 특히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정 형태의 변화, 부모의 지나친 성취 압력과 경쟁 구도 등으로 인하여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적응과 행동 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지역사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유아의 6~13% 정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 행동을 보였으며(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12개월간 유아들 문제 행동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 약 22%의 유아가 문제 행동의 고위험 경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현, 2009).

따라서 예방적 및 중재적 차원에서 유아들의 적응 능력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산되고 있으며(이정숙, 유정선, 2007),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지능, 신경심리학적 요인, 기질 등이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의 특성, 가족 분위기, 또래 관계 등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Masten & Coatsworth, 1998; Kazdin, Kraemer, Kessler, Kupfer, & Offord, 1997).

이 중에서 기질은 생의 초기에 출현하는 행동 경향성의 개인차로 시간에 걸쳐 여러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Bates, 1989). Thomas와 Chess(1977)는 영아의 어머니들에 대한 세심한 면담을 통해 기질에

대한 9가지 요인들을 개념화하였고, 이후 각 분야에서 영유아의 기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질적 특성에서의 개인차가 이후 적응 및 행동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thbart & Bates, 1998). 유아의 고유한 특성인 기질은 유아의 정서 조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Garner & Power, 1996), 까다로운 기질은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Thomas et al, 1977).

이와 같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정서 및 행동 발달 간의 관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Thomas, Chess, & Birch, 1968).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 기질과 적절히 조화가 되면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기능의 발달이 가능하지만 부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적응력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Thomas et al, 1977),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반응 특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실제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 통제, 거부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유아의 기질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Lee & Bates, 1985), 어머니의 지각이나 성격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Baker & Heller, 1996). 그럼에도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태도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데에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 요인은 유아의 정서 행동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Thomas & Chess, 1983).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양육태도는 그 개념이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정윤경,

2008).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양육과 관련된 부모 변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서와 관련된 부모 특성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역량이나 정서조절이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배지우, 2010; 임희수, 박성연, 2002; Gottman, Katz & Hooven, 1996).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은 자녀의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학대나 비난은 자녀의 과도한 자기 비난을 유발하며(Gibb, 2002), 어머니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갈등과 부정적 기분을 강화시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Thomas et al, 1983).

둘째, 유아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조절 방식과 능력을 발달시킨다(Calkins, 1994). 유아는 자신이 표현하는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대응 방식의 여러 속성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게 된다(Sroufe, 1996; Thompson, 1994). 따라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서표현성, 정서조절 능력 모두가 자녀의 정서 발달과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Denham, 1998). 특히, 유아의 내재화 문제 행동은 슬픔과 같은 정서를, 외현화 문제 행동은 분노와 같은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된다는 점에서 볼 때(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부모의 정서조절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우울, 불안, 분노 등 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이지영, 권석만, 2009; Folkman & Lazarus, 1985), 부모의 정신 건강은 자녀의 정서조절과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2).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분노 수준이 높은 경우 그 자녀는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Cummings, 1987; Downey & Coyne, 1990).

부모의 정서 관련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정서사회화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에서 부모의 정서 관련 사회화 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부모가 보여주는 다양한 대응 양식이 자녀의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같은 맥락에서 Gottman과 DeClaire(1997)도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상위 정서는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정서를 반성적인 수준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Mayer & Gaschke, 1988). 그 중에서 부모상위 정서는 양육 상황에서 자녀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구체화되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 학업 성취, 사회적 유능성 등 전반적 적응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ottman et al, 1996).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정서적 표현, 특히 부정적 정서 표현과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도 유아의 행동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한유진, 2004), 유아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자녀의 정서적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보다 광

범위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대응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거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확인하였다(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이지영, 2008;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 John, 2003). 정서조절은 기존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포함한다. 이 때, 대처 또는 정서조절 양식(styles)은 성격특성을 반영하며, 방략(strategies)은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반응을 의미한다(이동귀, 박현주, 2009). 정서조절방략은 스트레스 상황 특성에 따라 적응적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한성열, 허태균, 김종직, 채정민, 2001),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방략을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감소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지영, 2008; 이지영, 권석만, 2006)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을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어머니의 정서 관련 요인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배민정, 2008; Garner et al, 1996), 상위 정서(배지우, 2010; Gottman et al, 1996),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박유경, 2009; Eisenberg et al, 1998) 등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조절방략에 관한 연구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가 이에 대처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식에 따라 자녀의 정서조절 방식이 달라지며(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어머니의 충동적인 정서조절 방식

과 감정에 압도당하는 정서조절 방식은 자녀의 감정 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등, 2002).

한편, 유아의 기질과 정서 및 행동 문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의 기질에서 성차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Rothbart, 1988), 같은 기질적 특성을 보이더라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반응이 달라진다(Maccoby, Snow, & Jacklin, 1984). 일반적으로 공격성과 같은 문제는 남아가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불안, 위축과 같은 문제는 여아가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Achenbach, Howell, Quay, & Connors, 1991), 유아기에는 내재화나 외현화 문제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도 있다(한유진, 2004; Campbell, 1995).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차이를 지적하고 있으며(Keenan & Shaw, 1997), 특히 문제 행동에 주요한 영향 요인이나 발달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terba, Prinstein, & Cox, 2007). 그럼에도 실제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관한 연구는 남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아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강지현,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기질, 문제 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이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재원 중인 만 4-6세 유아 26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아는 남아 140명(53.8%), 여아 120명(46.2%)이었으며, 만4세 100명(38.5%), 만5세 111명(42.7%), 만6세 49명(18.8%)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73세(SD=3.73),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97세(SD=5.73)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74.6%, 64.6%),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 주부 54.2%,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26.5%, 자영업 22.3%, 전문직 19.6%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유아의 문제 행동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부모보고형을 사용하였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만 4-18세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표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척도 중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의 내재화 문제(31문항)와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31문항)에 해당하는 6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T점수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서 2점(매우 그렇다)까지의 3점 리커트 형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문제 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2~.86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내재화 문제행동 .80, 외현화 문제 행동 .83이었다.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 중 기질 차원을 사용하였다.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에 기초하여 개발된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을 민병배와 오현숙(200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새로운 자극에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 활동이 즉각적으로 유발되는 성향인 '자극 추구(15문항)', 낯설거나 위협한 자극에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경향성으로 인해 행동을 억제하고 중단하는 성향인 '위험회피(16문항)', 따뜻한 사회적 애착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타인의 감정과 친밀감에 따라 정서나 행동 반응이 달라지는 성향인 '사회적 민감성(12문항)',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경향성으로 인해 한 번 시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성향인 '인내력(12문항)'의 네 가지 하위 요인, 5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계분석에는 T점수를 사용하였다. 주 양육자가 각 문항에 대해 0점(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 기질 성향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 4개의 하위 기질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6~.87, 재검사 신뢰도는 .75~.8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극추구 .82, 위험회피 .67, 사회적 민감성 .78, 인내력 .62이었다.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

이지영(2008)이 개발한 정서조절방략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대처척도와 정서조절질문지(민

경환 등, 2000), 그리고 Parkinson과 Totterdell (1999)이 수집한 정서조절방략을 바탕으로 예비문항 전집을 만들어 개발한 질문지로, 각 개인이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일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방략들을 측정한다. 인지적 변화를 통해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는 인지적 방략 5개, 정서적 체험과 표현을 통해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는 체험적 방략 6개, 행동적 변화를 통해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적 방략 6개를 포함하며, 이 16가지 방략은 고차 요인 구조 분석 결과 지지추구적 방략(11문항), 부적응적 방략(25문항), 주의분산적 방략(14문항), 접근적 방략(19문항)의 네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지지추구적 방략은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얻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의 3개 방략, 부적응적 방략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폭식하기’, ‘탐닉활동 하기’의 6개 방략, 주의분산적 방략은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즐거운 상상하기’, ‘기본전환활동 하기’의 3개 방략, 접근적 방략은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문제해결행동 취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감정 수용하기’의 4개 방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0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6점(거의 항상 그렇다)의 7점 리커트 형식이며, 총 69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방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점수 분포는 지지추구적 방략 0~66점, 부적응적 방략 0~150점, 주의분산적 방략 0~84점, 접근적 방략 0~114점이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지지추구적 방략 .90, 부적응적 방략 .91, 주의분산적 방략 .89, 접근적 방략 .92였다.

절차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10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설문은 유아의 어머니가 작성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교사에게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유아를 통해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설문지를 어머니들에게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약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89부가 회수되었으며, 일부 응답이 누락된 12명과 만 4세 미만인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26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유아의 성별에 따라 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의 영향력과 매개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 유아의 문제 행동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하위 기질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질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고, $F(1, 258)=7.55, p<.01$,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여아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F(1, 258)=5.84, p<.05$. 위험회피 기질과 인내력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과 유아의 문제 행동 점수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표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남 (N=140)	여 (N=120)	전체 (N=260)	F
기질	자극추구 기질	52.69 (9.42)	49.62 (8.43)	51.27 (9.09)	7.56**
	위험회피 기질	50.81 (10.78)	51.23 (10.28)	51.00 (10.53)	.10
	사회적 민감성 기질	52.36 (9.99)	55.33 (9.73)	53.73 (9.96)	5.84*
	인내력 기질	50.40 (10.11)	50.75 (8.78)	50.56 (9.50)	.10
정서조절 방략	지지추구적 방략	37.79 (11.50)	36.18 (13.65)	37.05 (12.54)	1.07
	부적응적 방략	30.39 (18.09)	32.13 (18.37)	31.19 (18.21)	.60
	주의분산적 방략	42.46 (14.50)	41.65 (15.64)	42.09 (15.01)	.19
	접근적 방략	64.46 (17.85)	64.67 (19.12)	64.56 (18.41)	.01
문제 행동	내재화 문제	46.71 (8.01)	47.45 (8.33)	47.05 (8.15)	.54
	외현화 문제	49.36 (7.05)	50.19 (8.02)	49.75 (7.51)	.78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남아 집단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14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자극추구 기질	1									
2 위험회피 기질	.05	1								
3 사회적 민감성 기질	.14	.08	1							
4 인내력 기질	-.37***	-.10	.123	1						
5 지지추구적 방략	.13	.01	.27***	.04	1					
6 부적응적 방략	.43***	.24**	.12	-.24**	.17*	1				
7 주의분산적 방략	.08	.06	.21*	.10	.65***	.17*	1			
8 접근적 방략	.11	.05	.26**	.10	.60***	.20*	.68***	1		
9 내재화 문제	.24**	.49***	.28***	-.13	.15	.29***	.12	.05	1	
10 외현화 문제	.59***	.08	.09	-.22**	.21*	.43***	.16	.13	.61***	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여아 집단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12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자극추구 기질	1									
2 위험회피 기질	.06	1								
3 사회적 민감성 기질	.11	.05	1							
4 인내력 기질	-.23*	-.07	.00	1						
5 지지추구적 방략	.00	.03	.44***	-.06	1					
6 부적응적 방략	.25**	.04	.25**	.04	.14	1				
7 주의분산적 방략	-.02	-.00	.37***	-.01	.73***	.10	1			
8 접근적 방략	-.06	.07	.24**	.08	.55***	.09	.72***	1		
9 내재화 문제	.19*	.39***	.21*	.08	-.01	.27**	-.06	.05	1	
10 외현화 문제	.43***	.11	.03	-.01	-.01	.30***	-.10	-.08	.68***	1

* $p < .05$, ** $p < .01$, *** $p < .001$

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모든 변인들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남녀 집단을 구분하였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 유아의 문제 행동 간 관계

남아와 여아 집단에서 각 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와 3에 제시하였다.

우선, 기질과 문제 행동 간에는 정적 또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내재화 문제는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남아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r=.24, p<.01$), 위험회피 기질($r=.49, p<.001$), 사회적 민감성 기질($r=.28, p<.001$) 성향이 높을수록, 여아의 경우에도 자극추구 기질($r=.19, p<.05$), 위험회피 기질($r=.39, p<.001$), 사회적 민감성 기질($r=.21, p<.05$)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는 자극추구 기질, 민감성 기질과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남아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 성향($r=.59, p<.001$)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내력 기질 성향($r=-.22, p<.01$)이 낮을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자극추구 기질 성향($r=.43, p<.001$)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방략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r=.43, p<.001$)과 위험회피 기질($r=.24, p<.01$)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내력 기질($r=-.24, p<.01$) 성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부적응적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r=.25, p<.01$)과 사회적 민감성($r=.25, p<.01$) 성향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지추구적 방략, 주의분산적 방략, 접근적 방략은 모두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남녀 모두 사회적 민감성 기질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sim.44, p<.05\sim.001$).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과 유아의 문제 행동의 관계를 보면, 내재화 문제는 부적응적 방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어머니가 부적응적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녀 모두 내재화 문제 점수가 높았다($r=.27\sim.29, p<.01\sim.001$). 외현화 문제는 지지추구방략과 부적응적 방략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지지추구적 방략과 부적응적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현화 문제 점수가 높고($r=.21\sim.43, p<.01\sim.001$),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부적응적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현화 문제 점수가 높았다($r=.30, p<.001$).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 효과

기질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 각 집단별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을 통해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변인 간 단순 상관이 유의하다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일련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 세 단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인과 매

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그 이전 단계 보다 감소하거나(부분 매개효과) 무의미해져야(완전 매개효과)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 중 유아의 문제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부적응적 방략'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남녀 유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모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는 각각 표 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남아는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 여아는 자극추구 기질과 사회적 민

감성 기질에서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남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적응적 방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43, p < .0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25, p < .01$), 3단계에서 내재화 문제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beta = .15$) 부적응적 방략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 p < .05$). 따라서 남아 집단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완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은 내재화 문제의 약 6%를 설명하고, 자극추구 기질과 부적응적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10%를 설명하였다.

표 4. 남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효과 (N=14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2 변화량	F
자극추구 기질	1단계: 예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적응적 방략	0.82	0.43	5.52***	0.18	30.49***
	2단계: 예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21	0.25	2.97**	0.06	8.83**
	3단계: 예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3	0.15	1.69	0.10	7.60***
위험회피 기질		부적응적 방략→문제 행동	0.10	0.22	2.46*		
	1단계: 예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적응적 방략	0.41	0.24	2.95**	0.06	8.69**
	2단계: 예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6	0.49	6.60***	0.24	43.54***
	3단계: 예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3	0.45	5.93***	0.27	25.20***
		부적응적 방략→문제 행동	0.08	0.18	2.34*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여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효과 (N=12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2 변화량	F
자극추구 기질	1단계: 예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적응적 방략	0.55	0.25	2.84**	0.06	8.08**
	2단계: 예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9	0.19	2.13*	0.04	4.55*
	3단계: 예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3	0.13	1.45	0.09	5.83**
사회적 민감성 기질		부적응적 방략→문제 행동	0.10	0.24	2.63**		
	1단계: 예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적응적 방략	0.47	0.25	2.78**	0.06	7.70**
	2단계: 예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8	0.21	2.28*	0.04	5.18*
	3단계: 예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3	0.15	1.61	0.09	6.10**
		부적응적 방략→문제 행동	0.11	0.24	2.60**		

* $p < .05$, ** $p < .01$, *** $p < .001$

남아의 위험회피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적응적 방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24, p < .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49, p < .001$), 3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beta = .45, p < .001$)과 부적응적 방략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8, p < .05$)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내재화 문제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 집단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모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문제를 약 24% 설명하며,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27%를 설명하였다.

여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적응적 방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25, p < .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19, p < .05$), 3단계에서 내재화 문제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beta = .13$), 부적응적 방략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1$). 따라서 여아 집단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완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은 내재화 문제의 약 4%를,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9%를 설명하였다.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적응적 방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25, p < .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21, p < .05$), 3단계에서 내재화 문제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beta = .15$), 부적응적 방략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1$). 따라서 여아 집단에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완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내재화 문제의 약 4%를 설명하며,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9%를 설명하였다.

남녀 유아의 기질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모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는 각각 표 6과 7에 제시되어 있다. 남아는 자극추구 기질과 인내력 기질, 여아는 자극추구 기질에서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남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적응적 방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43, p < .001$), 2단계에서 기질이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59, p < .001$), 3단계에서 기질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beta = .50, p < .001$)과 부적응적 방략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1, p < .01$)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외현화 문제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 집단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모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를 약 35% 설명하며,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39%를 설명하였다.

남아의 인내력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적응적 방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24, p < .01$), 2단계에서 기질이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22, p < .01$), 3단계에서 외현화 문제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beta = -.13$), 부적응적 방략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 p < .001$). 따라서 남아 집단에서 인내력 기질은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완전 매개되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인내력 기질은 외현화 문제의 약 5%를 설명하고, 부적응적 방략이 포함된 모

델은 약 20%를 설명하였다.

여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적응적 방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25, p < .01$), 2단계에서 기질이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43, p < .001$), 3단계에서 기질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beta = .38, p < .001$)과 부적응적 방략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1, p < .05$)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외현화 문제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아 집단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모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의 약 18%를,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22%를 설명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남녀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과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 성향은 남아, 사회적 민감성 기질 성향은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극추구 기질은 남아가 더 높다고 보고한 강지현(2009)의 결과와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은 남아,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박진아, 정

표 6. 남아의 기질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효과 (N=14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 ² 변화량	F
자극 추구 기질	1단계: 예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적응적 방략	0.82	0.43	5.52***	0.18	30.49***
	2단계: 예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44	0.59	8.62***	0.35	74.34***
	3단계: 예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8	0.50	6.78***	0.39	43.34**
		부적응적 방략→문제 행동	0.08	0.21	2.89**		
인내력 기질	1단계: 예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적응적 방략	-0.44	-0.24	-2.96**	0.06	8.74**
	2단계: 예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6	-0.22	-2.70**	0.05	7.31**
	3단계: 예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09	-0.13	-1.62	0.20	16.86***
		부적응적 방략→문제 행동	0.15	0.40	5.01***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여아의 기질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효과 (N=12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 ² 변화량	F
자극 추구 기질	1단계: 예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적응적 방략	0.55	0.25	2.84**	0.06	8.08**
	2단계: 예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41	0.43	5.16***	0.18	26.60***
	3단계: 예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6	0.38	4.47***	0.22	16.89***
		부적응적 방략→문제 행동	0.09	0.21	2.46*		

* $p < .05$, ** $p < .01$, *** $p < .001$

문자, 2007; Constantino, Cloninger, Clarke, Hashemi, Przybeck, 200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새로운 자극에 호기심이 많고 행동이 즉각적이며, 여아는 남아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는 유아의 높은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관련되며, 외현화 문제는 높은 자극추구 기질, 낮은 인내력 기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강지현, 2009; Cloninger & Svrakic, 1997), 활동성(김은경, 2009; Mathiesen et al, 2000)이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내재화 문제는 행동 억제 경향(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erot, Fiedman, Snidman, Kagan, & Fraone, 2001),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모두 높은 기질(Rettew, Althoff, Dumenci, Ayer, Hudziak, 2008)과 관련되며, 외현화 문제는 활동성(Mathiesen et al, 2000)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회피 기질의 경우, Cloninger 등(1997)의 연구 결과와 달리 외현화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 기질은 다른 기질과 함께 작용할 때 특히 취약한 기질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Cloninger et al, 1997), 위험회피 기질이 자극추구 기질과 함께 상승하지 않으면 외현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위험회피 기질은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성향이며,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위험요인(Mick & Telch, 1998)이라는 점에서 내재화 문제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의 경우, Cloninger 등(1997)의 연구에서 성격 발달에 유리한 기질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강지현(2009)의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개인주의적 문화권의 독립적 자아와 달리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두드러지는 상호의존적 자아 입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Kim, 1994; 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조되어 내재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독립적인 자아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Okazaki, 2000). 또한, 환경적으로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축적되면서 내면화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략에 대한 분석 결과, 부적응적 방략이 유아의 문제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추구적 방략은 남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성인 자신의 정신건강과 정서조절 방략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적 대처, 능동적 방략, 긍정적 재초점화, 인지적 재평가 등이 적응적이고 효과적이며, 회피, 알콜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자기 비난, 타인비난, 과국화 등은 부적응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민경환 등, 2000; Folkman et al, 1985; Gamefski et al, 2001; Gross et al, 2003). 적응적인 방략들이 어머니 자신의 정신 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사고나 비난, 탐닉 활동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방략은 자녀의 문제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Gibb, 2002), 감정에 압도되고 충동적인 정서 조절을 할 때(임희수 등, 2002), 자녀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강화시키거나 재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타인의 지지를 충분히 구하지 못할 때는 더 큰 부정적 정서를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임진옥, 장성숙, 2003),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직접적으로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을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유아가 위축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아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 성향이 높은 경우와 남아의 인내력 기질 성향이 낮은 경우에도 기질 그 자체가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과 관련될 때 심리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반면,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의 위협회피 기질도 직접적으로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은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을 매개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유아

의 기질 성향과 문제 행동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유아가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Lee et al, 1985), 이와 같은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Thomas et al, 1983)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성별과 기질적 특성에 따라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을 하거나, 어머니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폭식이나 탐닉 활동 등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유아의 문제 행동을 심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유아가 기질적으로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유아가 심각한 수준의 정서 행동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부적응적 방략을 주로 사용할 경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자녀에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Eisenberg et al, 1998), 유아가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을 경험 속에서 학습하게 됨으로서(Sroufe, 1996), 정서 및 행동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크며, 정서적 민감성과 표현성이 높고, 정서조절을 더 잘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송명자, 1995; Eisenberg, Pidada, & Liew, 2001), 여아가 정서 발달 과정에서 기질 외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아보다 남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대한 설명력도 더 높았다

는 점에서, 어머니가 남아의 기질적인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반응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결과(Eisenberg et al, 1996; Keenan et al, 1997)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 교육에 있어서 남아 어머니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관계에서 성차가 확인됨으로써, 유아의 기질과 성별에 따른 문제 행동의 발달 경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전략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기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성별과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양육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유아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 및 임상 유아의 부모교육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머니 보고를 통해 수집하였다.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고정관념이나 반응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행동 관찰이나 어머니 면접 등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재원 중인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지역사회 집단과 임상 집단의 경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조절 전략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여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남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의 정서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을 더욱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의 정서조절 전략은 어머니와 다를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정서조절 전략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영향력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현 (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9).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3, 35-45.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16.
- 민병배, 오현숙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유아용. 서울: (주)마음사랑.
- 박유경 (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정문자 (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273-295.
- 배민정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우 (2010). 부모상위정서와 양육태도 및 아동 행동문제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2). 정신 장애 아동들의 어머니의 MMPI 유형 분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 97-105.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 53-73.
- 이동귀, 박현주 (2009).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꾸물거림 및 정신건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43-57.
- 이정숙, 유정선(2007). 학령전기아동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장기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29-43.
- 이지영 (2008). 정서조절방략과 정서장애의 관계 및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461-493.
- 이지영, 권석만 (2009). 정서장애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 245-261.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259-275.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 37-54.
- 정윤경 (2008). 아동 초기 정서 조절의 발달적 관련 변인: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 및 그 심리적 기제.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발표문*.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 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123-143.
- 한유진 (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 65-77.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Howell, C. T., Quay, H. C., & Conners, C. K. (1991). National survey of problems and competencies among four-to sixteen-year-olds: Parents' reports for normative and clinical sampl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6, 1-131.
- Baker, B. L. & Heller, T. L. (1996). Preschool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Experience of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513-53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es, J. E. (1989). Concepts and measures of tempera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N.Y.: Wiley.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673-1679.
- Breger, L. (1974). *From instinct to identity: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J.: Prentice-Hall.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53-72.
- Campbell, S.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6*, 113-149.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Child development*, *66*, 55-68.
- Cloninger, C. R. & Svrakic, D. M.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 120-141.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Constantino, J. N., Cloninger, C. R., Clarke, A. R., Hashemi, B., & Przybeck, T. (2002).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109*, 229-243.
- Cummings, E. M. (1987). Coping with background ange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Guilford Press.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of childrens

-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Pidada, S., & Liew, J.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2*, 1747-1763.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Gibb, B. (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s-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23-246.
- Gottman, J. M. & DeClaire, J. (1997). *Raising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Kazdin, A. E., Kraemer, H. C., Kessler, R. C., Kupfer, D. J., & Offord, D. K. (1997). Contributions of risk-factor research to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375-406.
- Keenan, K. & Shaw, D.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s on young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 95-113.
- Kim, M. S. (1994).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onversational constrain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128-151.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infant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Maccoby, E. E., Snow, M. E., & Jacklin, C. N. (1984). Children's disposition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at 12 and 18 month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59-47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sh, E. J. & Wolfe, D. A. (2002). *Abnormal child psychology*.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The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athiesen, K. S. & Sanson, A. (2000). Dimension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from 18 to 30 month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5-31.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2-111.
- Mesman, J., & Koot, H. M. (2001). Early Preschool Predictors of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SM - IV Diagno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029-1036.
- Mick, M. A. & Telch, M. J.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Okazaki, S. (2000).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differences on affective distress symptoms: Do symptom reports differ across reporting method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603-625.
- Parkinson, B. & Totterdell, P. (1999). Classifying affect-regulation strategies. *Cognition and emotion*, *13*, 277-303.
- Rettew, D. C., Althoff, R. R., Dumenci, L., Ayer, L., Hudziak, J. J. (2008). Latent Profile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pathology and Wellnes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 273-281.
- Rothbart, M. K. (1988).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241-1250.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development*. N.Y. : Wiley.
- Shaw, D. S., Winslow, E. B., & Flanagan, C. (1999).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742-755.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ba, S. K., Prinstein, M. J., & Cox, M. J. (2007).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across childhood: Heterogeneity, external validity,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345-366.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Thomas, A. & Chess, S. (1983).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In W. Damon (Ed.),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 Essays on the growth of the child*. N.Y.: W.W. Norton.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a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1차 원고 접수: 2010. 10. 12

수정 원고 접수: 2010. 11. 13

최종 게재 결정: 2010. 11. 14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on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Maternal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ung-Sook Lee Bogyong Mun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schooler's temperament 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mothers and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ers. The participants included 260 male and female preschoolers in Seoul. We measured the preschooler's temperament using JTCI 3~6 and behavior problems using K-CBCL. And we measured maternal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using ERSQ. The result showed that maladaptive strategies of mothers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ers. Maternal maladaptive strategie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 'novelty seeking' of preschoolers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reward dependence' of girls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persistence' of boys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And Maternal maladaptive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novelty seeking' of preschoolers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harm avoidance' of boys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It appears that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was affected by the maladaptive strategies of mothers.

Keywords: temperament of preschoolers, maladaptive strategies of mothers, internal behavior problem, external behavior problem